

NEWS LETTER

2018년 10월 29일 Vol.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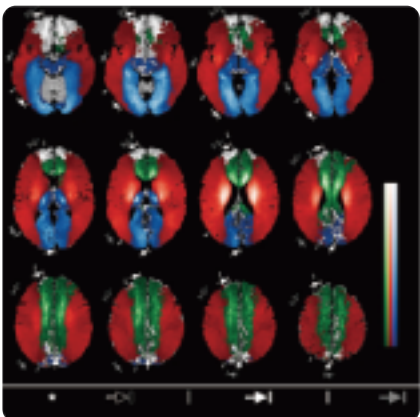
신경과 김동억, 류위선 교수 연구팀, 뇌혈관 질환 진단 정확도 높이는 ‘뇌혈류지도’ 개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동억, 류위선 교수 연구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는 전국 11개 대학병원의 뇌경색 환자 1,160명의 뇌 영상 데이터(MRI·MRA)를 기반으로 현존 최고 수준 고해상도의 뇌혈류지도를 개발에 성공했다.

뇌경색은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세 종류의 대뇌동맥(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 전대뇌동맥) 혈관계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이 막혀서 발생한다. 세 종류의 대뇌동맥은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의 혈류 공급을 담당한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각 대뇌동맥이 지배하는 뇌의 영역을 영토처럼 구분한 뇌혈류지도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계에서 100년 가까이 사용 중인 기존 저해상 뇌혈류지도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다.

김동억 교수는 “고해상도 뇌혈류지도는 뇌경색의 원인 진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선택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 성과는 미국의학협회지 JAMA Neurology (IF 11.6)에 발표되었다.



여성암 환우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조성민)은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구 진관사에서 ‘여성암 환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체험과 명상을 통해 암환자의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항암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내 종양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 곽범석 교수(외과)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4명과 환우 20여 명이 함께했다.

첫 일정으로 진관사 화려한 가을 단풍길 산책과 산새소리와 풍경소리를 감상하며 사찰 내 돌레길을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또 진관사에서 준비한 건강한 사찰음식과 다도를 즐기며 환우와 의료진 간에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현재 암 환자와 관련된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와 함께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종양환자관리위원회 원내교육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종양환자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목) 지하 1층 제3세미나실에서 교직원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원내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정재호 교수와 서세영 교수가 연자로 나서, ‘유방암의 내과적 치료’와 ‘암 환자에서 환자에 의한 치료 결과 자체평가 PROs(Patient Report Outcomes)’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의사, 학생,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의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외과 곽범석 교수(위원장)는 “이번 강의를 통해 종양 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앞으로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라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활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간호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에피소드, 『talk talk talk 김·떡·순(김밥·떡볶이·순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최근 행복한 간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talk talk talk 김·떡·순(김밥·떡볶이·순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 상호 간 이해의 시간을 갖고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간호부장과 팀장이 별도의 공간에서 김밥과 떡볶이, 순대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talk talk talk 김·떡·순(김밥·떡볶이·순대)』 첫 번째 주인공은 91병동으로 수간호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 깜짝 이벤트로 김동일 한방병원장, 권범선 진료부원장, 이형열 행정처장, 덕유 법사 스님이 방문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다.

진영숙 간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간호부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며, “직원들 간 수평적 의사소통의 채널로 기대되며, 많은 직원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부는 지난 2017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간호부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간호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에피소드 1 태어나줘서 고마워’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이벤트는 에피소드 두 번째로 『talk talk talk 김·떡·순(김밥·떡볶이·순대)』을 올해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